

仁義禮智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 朱子, 茶山, 戴震을 중심으로 -

김 조 영*

< 目 次 >

I. 서론	2. 茶山の 仁義禮智
II. 孟子의 仁義禮智	3. 戴震의 仁義禮智
III. 仁義禮智의 의미 비교	IV. 결론
1. 朱子の 仁義禮智	

<국문 초록>

본고는 孟子의 仁義禮智에 대한 茶山의 견해를 중심으로 朱子和 戴震의 견해를 비교분석하여, 仁義禮智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朱子和 茶山 그리고 戴震의 經學에 대한 변별성을 살펴본 것이다. 仁義禮智는 유학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程朱學에서는 일반적으로 仁義禮智는 性的 형이상학적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仁義禮智를 四德이라 부르며, 仁義禮智가 발현된 것이라고 하는 惻隱·羞惡·辭讓·是非는 四端이라 부른다.

經學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仁義禮智를 성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한 朱子는 『孟子集註』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朱子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字義를 중심으로 해석한 茶山의 仁義禮智는 『孟子要義』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氣 철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려한 戴震의 仁義禮智는 『孟子字義疏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성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한 朱子の 仁義禮智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

* 공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kkim1122@daum.net

질적 특성으로, '性'이기 때문에 '性卽理'의 사상에 따라 곧 '理'이다.

또한 惻隱·羞惡·辭讓·是非는 情이기 때문에 性인 仁義禮智가 四端인 惻隱·羞惡·辭讓·是非를 통해 발현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性'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茶山은 孟子의 仁義禮智를 해석함에 있어, 字義를 중심으로 孟子의 本義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茶山의 견해에 따르면, 仁義禮智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본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茶山은 性을 '사람의 嗜好'라고 하였으며, 惻隱·羞惡·辭讓·是非의 마음이 仁義禮智의 시작으로, 惻隱·羞惡·辭讓·是非가 행동으로 실천된 뒤에 仁義禮智라는 개념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茶山의 이러한 견해는 朱子가 말하는 仁義禮智와 상반된 개념으로, 程朱學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茶山의 독특한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戴震은 仁義禮智가 가지고 있는 원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였다. 戴震의 仁義禮智는 개별적 도덕원리로서 朱子나 茶山과도 구별된다. 또한 戴震의 견해로 보면 仁義禮智는 배우고 노력하는 행위로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실천한 뒤에 仁義禮智가 성립된다는 茶山의 견해와 맥락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戴震이 해석한 仁義禮智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仁義禮智를 설명함으로써 인간중심의 도덕적 행동원리로 이끌어내어 해석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仁義禮智에 대한 세 학자의 다양한 견해는 『孟子』經文의 本義에 접근하려는 학문적 변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변별성은 학문적 의미의 확충이며, 학문의 다양성을 성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또한 後學者들의 학문연구에 있어 사고의 전환을 이루게 하여 보다 심도 있는 經傳研究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학자의 仁義禮智에 대한 견해를 분석해 보는 것은 經傳研究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仁義禮智, 性, 惻隱·羞惡·辭讓·是非, 四端

I. 서론

본 논문은 孟子의 仁義禮智에 대한 茶山의 견해를 중심으로 朱子와 戴震¹⁾의 견해를 비교분석하여, 仁義禮智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朱子와 茶山 그리고 戴震의 經學에 대한 변별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학사상은 朱子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으며, 유학사상의 여러 개념들에 대해 朱子의 정의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仁義禮智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仁義禮智는 유학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程朱學에서 말하는 개념을 관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程朱學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유학사상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학사상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仁義禮智에 대해 성리학적 관점의 朱子와 성리학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茶山과,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으로 유학사상을 바라본 戴震을 선택하여 세 학자가 인식하고 있는 仁義禮智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유학사상의 인식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세 학자를 선택한 이유는 朱子學 중심의 학풍에서 朱子에 대한 비판적 사상을 통해 經學의 개념과 관점을 비교해 보면 經學에 대한 폭넓은 의미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茶山과 戴震은 朱子學에 비판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조선의 학자이고 한 사람은 淸나라 학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와 사

1) 戴震 1724-1777. 淸나라 安徽 休寧사람. 字는 東原 또는 慎修, 呆溪이다. 江永에게 사사했고, 음운과 훈고, 지리, 천문, 산수, 제도, 名物 등 여러 분야에 통달했다. 건륭 27년 舉人이 되었다. 38년 부름을 받아 『四庫全書』 찬수관이 되었다. 大理 少卿에 발탁되었다. 40년 會試에서 낙방했지만 특명으로 殿試에 나가 진사가 되었다. 문자로 훈고를 구하고, 훈고로 의리를 탐구함으로써 편견 없이 실증적으로 진리를 탐구했다. 曆算과 지리에도 정통했다. 고증학을 확립하여 그 이론으로 『孟子字義疏證』을 저술했다. 그 밖의 저서에 『考工記圖』와 『屈原賦注』, 『原善』, 『戴東原集』 등이 있다.

상의 다른 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仁義禮智에 대한 개념을 각자의 저술인 『孟子要義』와 『孟子字義疏證』에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茶山은 글자의 字源을 중심으로 仁義禮智에 대한 개념을 풀이해 가고 있으며, 戴震은 孟子가 말한 仁義禮智에 또 다른 함의가 있음을 밝히려고 하였기 때문에 仁義禮智에 대한 변별성과 색다른 시각을 통한 비교분석이 매우 용이한 점 또한 이 세 학자를 선정한 요인이다.

程朱學에서는 일반적으로 仁義禮智는 性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仁義禮智를 四德이라 부르며, 仁義禮智가 발현된 것이라고 하는 惻隱·羞惡·辭讓·是非는 四端이라 부른다.

한편, 程朱學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자들 중에 하나가 茶山 丁若鏞이다. 茶山은 程朱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학자로 기존 程朱學에서 말하는 여러 개념을 비판하고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性理學的 세계관을 기반으로 약 2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조선사회는 兩亂을 거치면서 사회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17세기 조선사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였다. 한 방향은 당시의 시대적 위기 상황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의 결함과 오류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불완전한 또는 잘못된 적용에서 연유하였다는 입장으로 집권 ‘老論’ 계열의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程朱學을 절대시하는 동시에 程朱學 이외의 학설이나 학문은 모조리 異端邪說로 규정하여 단호하게 배척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南人’과 ‘少論’ 계열의 학자들로 非儒敎思想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현실개혁의 논리와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정권에서 소외된 在野학자 출신들이었다는 점과 그들의 개혁안을 지탱해 주는 철학적 논리가 부족하여 의미 있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들의 철학적 논리는 19세기 초반 정약용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인 사상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脫性理學的 학풍은 오늘날 말하는 實學風의 前潮라고 볼 수 있으며, 脫性理學

的 입장의 학자들은 윤희와 박세당, 정제두, 정약용, 허목, 유형원, 이익 등을 들 수 있다.²⁾

정약용의 脫性理學的 학풍을 다르게 표현하면 反朱子의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反朱子의’이라는 표현이 朱子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茶山은 『孟子要義』에서 기존 程朱學에서 주장하는 개념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性嗜好說’,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四德의 의미’, ‘井田制’, ‘氣質의 淸濁과 善惡’ 등이 있다.

淸나라 학자인 戴震도 程朱學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정립한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戴震이 살던 淸나라 중기에는 淸나라 왕조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대토지소유가 확대되었다. 이에 일반 백성들은 열에 여섯, 일곱은 소작인으로 전락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따라서 소작인들의 조세저항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상품 경제의 발전으로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들에 의한 폭동과 동맹파업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지배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하층 사대부로서 기층 민중의 생활을 익히 알고 있던 戴震은 여전히 官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朱子學에 반감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나온 것이 그의 주저인 『孟子字義疏證』이다. 고증학과 氣 철학을 결합한 그의 학문방법론이 저술의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孟子字義疏證』에서 戴震은 朱子學의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분석하여 그것들이 孔子나 孟子가 말한 원래의 뜻과는 다른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송나라 유학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였다.³⁾ 戴震은 주자학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정립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朱子의 ‘性卽理’의 개념에 대해 氣 철학적 입장에서 사람의 본질을 ‘血氣之欲’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정일균, 『다산 사서경학 연구』, 일지사, 2000, pp.64-68, 참조.

3) 임옥균 역, 『맹자자의소증원선』, 홍익출판사, 1999, p.18.

본고에서 살펴볼 仁義禮智는 朱子와 茶山과 戴震의 독특한 견해를 통해 仁義禮智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朱子의 견해는 『孟子集註』에 잘 나타나 있으며, 茶山은 『孟子要義』에서 朱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戴震은 『孟子字義疏證』에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經學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仁義禮智에 대한 상반된 입장⁴⁾의 견해를 비교분석하여 살펴보는 것은 仁義禮智의 명확한 이해와 經學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위해 또 다른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방법으로, 먼저 孟子가 말한 仁義禮智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성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한 朱子의 仁義禮智는 『孟子集註』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朱子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字義를 중심으로 해석한 茶山の 仁義禮智는 『孟子要義』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氣 철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려한 戴震의 仁義禮智는 『孟子字義疏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孟子의 仁義禮智

『孟子』 「公孫丑 上」 6장과 「告子 上」 6장에, 孟子가 말한 仁義禮智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공손추 상」 6장에서는 仁義禮智의 四德과 惻隱·羞惡·辭讓·是非의 四端을 통해 不忍人之心을 강조하였고, 「고자 상」 6장은 公都子가 性善에 관해 질문하였는데 맹자가 仁義禮智의 四德과 惻隱·羞惡·辭讓·是非의 四端을 통해 대답한 내용이다.

먼저 「공손추 상」 6장에서, 孟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차마 해치지

4) 朱子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설명하였고, 茶山은 字義의 설명을 통해 朱子와 정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戴震은 주자, 다산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고 하였다. 이 不忍人之心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 不忍人之心은 不知不識間에 발현된다고 보았다. 이것을 孟子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에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 아이가 장차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니,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며, 鄉黨과 朋友들에게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며, (잔인하다는) 명성을 싫어해서 그러한 것도 아니다.⁵⁾

孟子는 不忍人之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惻隱·羞惡·辭讓·是非의 四端으로 설명하였다. 이 四端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또한 四端은 仁義禮智의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仁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義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禮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智의 단서이다.⁶⁾

또한, 孟子는 사람이 四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四端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四端을 잘 발현시켜서 仁義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四端을 스스로 해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 『孟子』, 「公孫丑 上」 6,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6) 『孟子』, 「公孫丑 上」 6,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

사람이 이 四端을 가지고 있음은 四體를 가지고 있음과 같으니, 이 四端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요, 자기 군주가 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⁷⁾

따라서 孟子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仁義禮智가 四端을 통해 발현하여 제대로 실행한다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이것을 불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타오르고, 샘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무릇 四端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만약 그것을 다 넓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막 타오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⁸⁾

「고자 상」 6장은, 公都子가 당시 논란이 된 性論의 異說을 가지고, 性善의 의미를 질문하고 맹자가 답한 내용이다. 다음은 공도자의 질문에 孟子가 답한 내용이다.

하늘로부터 타고난 情으로 본다면 좋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말하는 본성은 좋하다는 것이다.不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측은지심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수오지심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공경지심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은 仁에 속하고, 수오지심은 義에 속하며, 공경지심은 禮에 속하고, 시비지심은 智에 속한다. 이 인의예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버리면 잃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간혹 사람과 사람사이의 거리가 서로 배가 되

7) 『孟子』, 「公孫丑 上」 6,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

8) 『孟子』, 「公孫丑 上」 6,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고 다섯 배가 되고 심지어 몇 배인지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그 타고난 재질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⁹⁾

孟子는 사람이 갖고 있는 情은 善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람에게 善한 情이 있지만, 사람들이 不善을 하는 것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善한 情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孟子는 사람들이 타고난 才質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본래 가지고 있는 性과 善한 才質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견해이며, 「고자 상」 6장에서 孟子가 강조하는 요점은 仁義禮智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孟子의 仁義禮智는 본래 나에게 있는 것이며, 사람이 情이나 才, 惻隱·羞惡·辭讓·是非의 四端을 통해 발현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不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III. 仁義禮智의 의미 비교

1. 朱子の 仁義禮智

朱子는 仁義禮智의 개념을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치인 性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朱子는 仁義禮智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9) 『孟子』, 「告子 上」 6, “乃若其情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禮智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曰 求則得之 舍則失之 或相倍蓰而無算者 不能盡其才者也”

仁이란 마음의 德이요, 사랑의 원리라고 하였으며, 義란 마음의 제재요, 일의 마땅함이라고 하였다.¹⁰⁾

禮는 天理의 節文이요, 人事의 儀則이다.¹¹⁾

智는 분별하는 이치이다.¹²⁾

또한, 朱子는 仁義禮智를 각각의 독립된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義와 禮와 智는 仁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仁義禮智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서로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仁은 사람의 본체이고, 禮는 仁의 節文이 되며, 義는 仁의 판단기제가 되고, 智는 仁의 분별을 아는 것이다.¹³⁾

朱子의 仁義禮智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性으로 形而上者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仁義禮智를 모두 합한 것이 형이상학적 개념인, 하나의 온전한 性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仁義禮智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性을 설명하면서 仁義禮智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性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方便的 설명인 것이다.

다음은 朱子가 仁義禮智와 四端과의 관계를 밝힌 부분이다.

惻隱, 羞惡, 辭讓, 是非는 情이요, 仁義禮智는 性이요, 心은 性과 情을 통합한 것이다. 端은 실마리이다. 情이 발함으로 인하여 性의 분연함을 볼 수 있으나, 마치 물건이 가운데에 있으면 실마리가 밖에 나타남과 같은 것이다.¹⁴⁾

10) 『孟子集註』, 「梁惠王 上」 1, 集註, “仁者, 心之德, 愛之理, 義者, 心之制, 事之宜也.”

11) 『論語集註』, 「學而」 12, 集註,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12) 『小學集註』, 「小學題辭」, 正誤, “智者 別之理”

13) 『朱子語類』, 卷6, “仁字須兼義禮智看, 方看得出. 仁者, 人之本體, 禮者, 仁之節文, 義者, 仁之斷制, 智者, 仁之分別.”

朱子は 仁義禮智는 性의 영역이고 四端은 情의 영역이라고 하여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 또한, 四端이 발현하는 것으로 性의 본연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자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치인 性의 모습을 仁義禮智라는 형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仁義禮智는 惻隱, 羞惡, 辭讓, 是非의 四端이 발현한 실마리로 인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仁義禮智에 대한 朱子의 견해를 따르면 仁은 ‘사랑하는 원리’이니 이러한 실마리가 발현되면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인 惻隱之心이 되는 것이다. 義는 ‘일의 마땅함’이니 이러한 실마리가 발현되면 자기의 不善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不善을 미워하는 羞惡之心이 되는 것이다. 禮는 ‘사람의 일에 나타난 행동과 법칙’이니 이러한 실마리가 발현되면 나 스스로 물러나고 남에게 양보하는 辭讓之心이 되는 것이다. 智는 ‘분별하는 이치’이니 이러한 실마리가 발현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是非之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의 仁義禮智는 性의 形而上的인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되며 仁義禮智가 상황에 따라 발현된 것이 惻隱·羞惡·辭讓·是非 四端이 되는 것이다. 또한 朱子가 四端의 端을 실마리라고 주석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朱子의 惻隱·羞惡·辭讓·是非에 대해 설명이다.

惻은 서글퍼하기를 간절히 함이요, 隱은 아파하기를 깊이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이른바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란 것이다. … 羞는 자기의 不善함을 부끄러워함이요, 惡는 남의 不善을 증오하는 것이다. 辭는 풀어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요, 讓은 미루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 是는 그 善함을 알아서 옳게 여기는 것이요, 非는 그 惡함을 알아서 그르케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을 삼는 것이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惻隱之心을 論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모두 세어서 사람이 만일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라 이를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음을

14) 『孟子集註』, 「公孫丑上」 6, “惻隱 羞惡 辭讓 是非 情也, 仁義禮智 性也, 心統性情者也. 端, 緒也. 因其情之發, 而性之本然, 可得而見, 猶有物在中而緒見於外也.”.

밝히신 것이다.¹⁵⁾

朱子の 四端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사람의 감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朱子가 四端을 情이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朱子는 「고자 상」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情은 性이 움직인 것이다. 사람의 情은 본래 다만 善만 할 수 있고, 惡은 할 수 없으니 곧 性이 본래 善함을 알 수 있다. 才는 재질과 같으니, 사람의 능함이다. 사람이 이 性을 가지고 있으면 이 才質을 가지고 있으니, 性이 이미 善하면 才質 또한 善하다. 사람들이 不善을 함은 바로 物欲에 빠져서 그러한 것이니, 才質의 죄가 아니다.¹⁶⁾

朱子는 性이 본래 善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현한 情 또한 善하다는 견해이다. 다만 情이 본래 善한데 사람이 不善을 하는 것은 타고난 才質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 욕심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仁義禮智에 대한 朱子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朱子는 사람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性을 仁義禮智라고 하였다. 따라서 朱子의 性即理의 원리에 따라 仁義禮智는 마음속에 내재된 형이상학적 理가 된다. 또한 仁義禮智의 발현은 情에 해당 되며, 惻隱·羞惡·辭讓·是非라는 四端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 발현된 행위의 인식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情의 형태로 발현되는 四端이 모두 善한데 그것은 四端

15) 『孟子集註』, 「公孫丑 上」 6, “惻 傷之切也 隱 痛之深也 此即所謂不忍人之心也 … 羞 恥己之不善也 惡 憎人之不善也 辭 解使去己也 讓 推以與人也 是 知其善而以爲是也 非 知其惡而以爲非也 人之所以爲心 不外乎是四者 故 因論惻隱而悉數之 言 人若無此 則不得謂之人 所以明其必有也”

16) 『孟子集註』, 「告子 上」 6, “情者 性之動也 人之情 本但可以爲善 而 不可以爲惡 則 性之本善 可知矣 才猶材質 人之能也 人有是性 則有是才 性即善 則才亦善 人之爲不善 乃物欲陷溺而然 非其才之罪也”

의 본체인 性이 본래 좋하기 때문이다.

2. 茶山の 仁義禮智

朱子가 사람의 마음에 본래 갖춰진 性을 仁義禮智라고 한 것과 달리, 茶山의 견해는 仁義禮智가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후천적으로 仁義禮智에 맞는 행동을 한 뒤에라야 仁義禮智라는 이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茶山은 仁義禮智에 대한 의미를 밝히면서, 제일 먼저 字義의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다음은 茶山이 仁義禮智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仁字의 字義를 분석한 부분이다.

仁은 人과 人이 중첩된 문자이니 孫字가 子字를 중첩되게 쓴 것과 같고, 사람과 사람이 자기 분수를 다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¹⁷⁾

茶山은 仁이라는 글자는 ‘사람과 사람이 중첩된 글자’이고, 字義가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許慎의 『說文解字』를 살펴보면 仁은 ‘친함’이라고 하였고, 徐鉉¹⁸⁾은 仁

17) 『孟子要義』, 「梁惠王 第一」, 孟子見梁惠王章, “仁者 人人之豊文也 如孫字爲子子之豊文 人與人之盡其分謂之仁 故古人謂愛人曰仁.”

18) 徐鉉 917-992. 북송 揚州 廣陵 사람. 자는 鼎臣이고, 徐延休의 아들이다. 젊었을 때 韓熙載와 이름을 나란히 해서 江東에서 ‘韓徐’라 불렸다. 동생 徐鉉과 함께 ‘二徐’로도 불렸다. 五代 때 吳나라에서 벼슬해 校書郎이 되고, 南唐에서는 知制誥와 翰林學士, 吏部尙書 등을 역임했다. 송나라에 들어 太子率更令이 되었다. 태종 太平興國 초에 學士院에 근무하면서 給事中을 지냈다. 左右 散騎常侍를 각각 거쳤다. 淳化 2년(991) 靜難軍 行軍司馬로 貶謫되었다가 邠州에서 죽었다. 시문에 능했고, 문자의 訓詁에 정통했다. 일찍이 『說文解字』를 다시 교정하고, 『文

은 ‘겸애’라고 하였다.¹⁹⁾ 단옥재²⁰⁾는 『說文解字注』에서 仁은 ‘친밀함이 지극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仁은 人과 二로 이루어진 會意字라고 하였다.²¹⁾ 따라서 茶山이 人과 人이 중첩된 문자라고 한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친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朱子가 말한 ‘마음의 德이면서 사랑하는 원리’라고 한 것과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茶山의 ‘사람과 사람사이의 친밀함’은 두 사람 사이에서 道理와 본분을 지극히 하는 것으로 善을 행한 다음 이루어지는 도덕개념의 의미가 강하다.

茶山은 義의 의미를 ‘나를 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義字의 윗부분 ‘羊’은 ‘善’의 뜻을 가진 글자이고, 아래 부분은 我자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茶山의 견해를 따르면 義字는 ‘나에게 좋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²²⁾

許慎의 『說文解字』를 살펴보면 義는 ‘나의 威儀’라고 하였다. 이에 徐鉉이 ‘이것은 善자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羊을 따랐다’고 하였다.²³⁾ 茶山의

苑英華』의 편찬에도 참여했다. 저서에 『騎省集』과 『徐文公集』 30권이 전한다.

19) 허신, 『설문해자』, 중화서국, 2016, p.159, “仁 親也。从人, 从二。臣鉉等曰 仁者兼愛。”

20) 段玉裁 1735-1815. 청나라 江蘇 金壇 사람. 字는 若膺 또는 懋堂이다. 乾隆 25년 (1760) 舉人이 되었다. 貴州 玉屏知縣에 올랐다. 四川으로 옮겨 巫山 등지의 지현을 지내고 병으로 사직했다. 蘇州 楓橋에 살면서 문을 닫아걸고 책 읽기에 전념했다. 처음에 戴震과 벗으로 사귀었는데, 존경하여 스승으로 모셨다. 王念孫과 더불어 戴氏의 ‘段王二家’라 불린다. 수십 년 동안 공력을 들인 說文學의 대가이며, 한나라의 許慎이 지은 字書 『說文解字』의 주석 30권을 저술함으로써 난해한 설문 주석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저서에 『古今尙書撰異』 32권과 『春秋左氏經』 12권, 『六書音均表』, 『經韻樓集』 등이 있다.

21) 단옥재, 『설문해자주』, 상해고적출판사, 2011, p.365, “曰 親者, 密至也。從人二 會意。”

22) 정일균, 『다산 사서경학 연구』, 일지사, 2000, p.405.

23) 허신, 『설문해자』, 중화서국, 2016, p.267, “己之威儀也。從我羊。臣鉉等曰 此與善同意, 故從羊。”

견해는 이 『설문해자』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茶山の 견해에 따르면 義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 또는 이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세상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義가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義가 갖는 중요한 점을 茶山은 『論語古今注』에서 ‘善을 행하고 惡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 역시 사람의 실천적 행동을 중심으로 義를 설명하고 있다.

茶山の 견해를 따르면 禮는 원래 ‘祭禮’를 의미한다. 茶山은 ‘禮’의 字形에서 “示는 神을 나타내고, 曲은 竹器를 나타내며, 豆는 木器를 의미한다. 따라서 禮는 神(示) 옆에 籩豆와 簋俎를 진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茶山의 견해에 따르면 ‘祭禮’가 바로 禮의 本義가 된다.²⁴⁾

許慎의 『說文解字』를 살펴보면 禮는 ‘이행하다(履也)’는 뜻으로, 귀신을 섬겨 복을 지극히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²⁵⁾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禮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禮는 이행한다는 뜻이다. 禮記 祭義와 周易 序卦傳에 보인다. 履는 발로 의지하는 바이다. 引伸하여 모든 것의 의지하는 것을 모두 履라고 말한다. 이는 假借의 용법이다. 履는 履라고 한다. 禮는 履라고 한다. 履는 같으나 뜻은 같지 않다. 귀신을 섬겨 복을 다하는 것이다. 示와 豊으로 이루어졌다. 禮는 五經에 있으니, 제사보다 중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禮字는 示를 따랐다. 豊은 禮를 행하는 그릇이다. 豊은 또한 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²⁶⁾

24) 정일균, 『다산 사서경학 연구』, 일지사, 2000, p.406.

25) 허신, 『설문해자』, 중화서국, 2016, p.1, “禮 履也. 所以事神致福也.”

26) 단옥재, 『설문해자주』, 상해고적출판사, 2011, p.2, “禮, 履也. 見禮記祭義, 周易序卦傳. 履足所依也. 引伸之凡所依皆曰履, 此假借之法. 履, 履也. 禮, 履也. 履同而義不同. 所事神致福也. 从示, 从豊. 禮有五經, 莫重於祭, 故禮字从示. 豊者行禮之器. 豊亦聲.”

許愼과 段玉裁의 견해를 통해 볼 때, 茶山이 말한 禮의 本義가 귀신을 섬기는 제사와 관계가 있으며, 示는 神을 나타내고 또한 제사 그릇과 관계가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茶山은 祭禮의 升降拜揖과 辭讓進退의 행위들을 통해 자신의 私慾을 이겨 외면적인 행동을 절제하는 것으로 禮의 의미로 삼고 있는 것이다. 茶山이 말하는 禮는 행동의 실천을 통해 인류의 본질적 개념인 禮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茶山은 智의 본의를 ‘黑白을 변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許愼의 『說文解字』를 살펴보면 智는 ‘말을 아는 것(智 識詞也)²⁷⁾’이라고 하였고, 段玉裁도 역시 ‘말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말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茶山이 智의 의미를 ‘黑白을 변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여 옳고 그름을 변별하는 것’에서引申된 견해로 보인다.

茶山이 말하고 있는 仁義禮智의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사람이 후천적으로 실천한 뒤에 각각의 仁義禮智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자가 仁義禮智는 사람에게 본래 있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의 견해이다.

다음은 茶山이 仁義禮智가 후천적으로 실천을 한 뒤에 성립한다는 견해와 仁義禮智가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이다.

仁義禮智의 명칭은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뒤에 그것을 仁이라고 하니,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仁이라는 명칭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를 착하게 한 뒤에 이것을 義라고 하니, 나를 착하게 하기 전에는 義라는 명칭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인과 손이 서로 절하는 행동이 있

27) 허신, 『설문해자』, 중화서국, 2016, p.69.

고 나서 禮라는 이름이 성립하며, 사물을 명료하게 분별한 뒤에 智의 명칭이 성립되는 것이니, 어찌 仁義禮智의 네 알맹이가 복숭아와 살구의 씨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덩어리로 잠재해 있는 것이겠는가?²⁸⁾

뿐만 아니라, 茶山은 仁義禮智가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論語』에 나오는 몇 가지의 용례를 들어 말하고 있다.

有子 말하기를 “효제가 仁을 행하는 근본이다.”라고 하였고, 孔子 말하기를 “仁을 행함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며, 曾子는 “당당하구나, 子張이여! 그러나 함께 仁을 행하기는 어렵도다.”라고 하였으니 仁이 본래 마음속에 들어있는 理라면 어떻게 仁을 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²⁹⁾

顏淵이 仁을 물으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禮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다”라고 하였으니, ‘仁’이라는 것은 사람이 공부하여 이루는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한 덩어리의 仁을 사람의 마음속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님을 밝혔다.³⁰⁾

茶山은 有子와 孔子가 대화한 용례에서 ‘爲仁’이라는 말의 ‘爲’자는 ‘作’과 같은 의미이며, 힘을 써 일을 행하는 것이 ‘爲’이고, 또한 손을 대어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爲’의 의미이기 때문에, 仁이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동을 한 뒤에 갖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茶山은 孟子의 “물고기를 버리고 熊掌을 취하고, 삶을 버리고 義

28) 『孟子要義』, 「公孫丑 第二」, 人皆有不忍人之心章, “仁義禮智之名 成於行事之後 故愛人而後謂之仁 愛人之先 仁之名未立也 善我而後謂之義 善我之善 義之名未立也 賓主拜揖而後 禮之名立焉 事物辨明而後 智之名立焉 豈有仁義禮智四顆 磊磊落落 如 桃仁 杏仁 伏於人心之中者乎?”

29) 『孟子要義』, 「公孫丑 第二」, 人皆有不忍人之心章, “有子曰 孝弟也者 其爲仁之本. 孔子曰 爲仁由己. 曾子曰 堂堂乎 張也! 難與並爲仁矣 仁本在內之理 則何以謂之爲仁?”

30) 『孟子要義』, 「公孫丑 第二」, 人皆有不忍人之心章,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明仁之爲物, 成於人功, 非賦生之初, 天造一顆仁塊, 挿於人心也.

를 취한다.”라는 말을 근거로 ‘義’라는 것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茶山은 仁義禮智가 실천한 뒤에 성립된다고 말하면서, 이 仁義禮智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四端을 언급하여 설명하였다.

四端은 仁義禮智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聖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여기에서부터 공부를 일으키고 여기에서부터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하였다.³¹⁾

다음은 四端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이다.

惻隱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발현되는데, 이것을 끌어내어 키우면 어진 정치를 행할 수 있으니, 惻隱之心은 仁情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辭讓之心은 마음속에서 발현되는데, 이것을 끌어내어 키우면 예법을 행할 수 있으니, 辭讓之心은 예법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羞惡之心이 근본이 되고 伯夷가 더러운 임금을 섬기지 않은 것은 끝이며, 是非之心이 머리가 되고, 展禽이 爰居를 제사하지 않은 것은 꼬리이다.³²⁾

茶山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惻隱·羞惡·辭讓·是非를 이끌어 내어 仁義禮智를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惻隱·羞惡·辭讓·是非가 仁義禮智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程朱學에서 仁義禮智가 마음속에 있는 性이고, 그 仁義禮智가 발현된 것이 惻隱·羞惡·辭讓·是非가 된다는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茶山은 性을 ‘嗜好’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茶山의 견해를 따르면, 仁義禮智는 性이 아니고 하나의 嗜好일 뿐이다. 따라서 성리학적

31) 『孟子要義』, 「公孫丑 第二」, 人皆有不忍人之心章, “四端爲四事之本 故聖人教人自此起功 自此肇基 使之擴而充之”

32) 『孟子要義』, 「公孫丑 第二」, 人皆有不忍人之心章, “惻隱之心發于內 引而長之 則可以行仁政 惻隱之心 非仁政之所始乎? 辭讓之心發于內 引而長之 則可以行禮法 辭讓之心 非禮法之所始乎? 羞惡之心爲之本 而 伯夷之不事汙君 其末也 是非之心爲之頭 而展禽之不祀爰居 其尾也”

견해와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茶山은 端字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四端을 말하면서 맹자가 직접 ‘불이 처음 타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샘물이 처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을 근거로 端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茶山이 이렇게 端을 ‘시작’이라고 강조한 것은 惻隱·羞惡·辭讓·是非가 仁義禮智를 행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惻隱·羞惡·辭讓·是非로부터 시작하여 행동하고 실천한 뒤에 仁義禮智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3. 戴震의 仁義禮智

戴震은 『孟子字義疏證』에서 仁義禮智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먼저, 戴震은 ‘仁’의 개념을 ‘남고 낳는 德이다’ 라고 하였고, 義는 ‘條理가 확실하여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이라 하였고, 禮는 ‘條理가 정연하여 질서가 있는 것’이라 하였고, 智는 ‘仁·義·禮를 아는 것’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朱子나 茶山과는 또 다른 독특한 개념이다.

戴震은 ‘仁’의 의미를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완수하고 그것을 미루어 천하와 더불어, 함께 그 삶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고 낳는 德’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戴震은 일상생활에 나아가 가장 精微한 극치를 궁구하는 것이 仁이요, 義요, 禮라고 말하고 있다. 戴震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중점을 두어 仁義禮智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戴震의 仁義禮智에 대한 견해는 매우 인간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사람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천하 모든 사람과 함께 삶을 완성하는 공동체적 개념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仁과 義와 禮가 매우 유기적 인과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서술

하겠다.

戴震은 ‘禮’라는 것은 ‘천지의 條理’라고 하였는데, 이 條理는 천지자연의 질서와 같은 개념으로, 戴震이 禮를 말하면서 혹 넘치는 것은 제재하고, 혹 모자라는 것은 권면하여 천지의 ‘中’을 알기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을 전제로 절차에 맞음을 禮라고 개념 정의한 것이다. 이 또한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대진이 禮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한 부분이다.

人情이 옹어지면 오히려 더욱 모양을 꾸미게 되니, 이는 모양을 꾸미는 것 때문에 人情이 옹어지는 것이 아니고, 人情이 점점 옹어지는데 다만 모양만을 꾸며 禮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모양을 꾸미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人情이 옹어지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³³⁾

戴震은 禮를 말함에 있어서도 人情을 例로 들어, 인간중심의 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戴震은 忠과 信은 禮를 행하는데 있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忠과 信을 가진 사람은 禮를 배울 수 있다”고 한 것은 바탕이 아름다운 사람이 禮에 나아가는 것이 모양은 꾸미고 정은 옹어지는 폐단이 없다는 말이다.³⁴⁾

군자가 禮를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해 보면, 그가 忠과 信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더라도, 禮를 알지 못하면 얼마다 條理가 어긋나서 군자가 되기에 부족하다.³⁵⁾

33) 임옥균 역, 『맹자자의소증·원선』, 홍익출판사, 1999, p.134.

34) 위의 책, p.135.

35) 임옥균 역, 『맹자자의소증·원선』, 홍익출판사, 1999, p.135.

忠과 信은 바탕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오므로, 聖賢은 行을 논하면서 忠과 信을 중시했다. 그러나 바탕이 아름답더라도 일을 행할 때 드러나는 것을 말해 본다면, 배움이 부족하면 實이 잘못되고 따라서 행동도 잘못되어 마음에 忠과 信을 갖지 않음이 없더라도 道를 많이 해치게 된다. 행동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忠과 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움을 좋아하지 않아서 종종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다. 여기에서 배움과 禮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³⁶⁾

戴震은 義를 ‘條理가 정연하여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버이를 사랑하고 연장자를 봉양하는 것이 바르고 큰 실정에 맞지 않으면 義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군자의 정밀한 義는 친·소와 상·하를 결정하여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戴震이 말하는 義는 ‘사람과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질서를 바탕으로, 정연한 조리와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戴震은 智의 의미를 위에서 언급한 ‘仁·義·禮’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戴震은 智가 사람에게 있으므로 인하여 仁·義·禮를 본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며, 사람이 스스로 仁義禮智를 행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戴震이 인식한 仁義禮智는 仁義禮智가 서로 다른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고 仁義禮智가 서로 긴밀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仁은 義를 포함하고 있어서, 義가 맞지 않으면 仁이 바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仁은 禮를 포함하고 있어서 禮가 없으면 仁이 바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仁을 실천하려면 義와 禮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禮와 義는 서로 포함관계에 있으며, 仁·義·禮가 智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智가 있어서 사람들이 仁·義·禮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戴震이 인식한 仁義禮智는 義와 禮, 仁·義·禮와 智가 서로

36) 위의 책, p.136.

밀접하여 不可分の 관계가 된다.

仁을 말하면 義를 포함할 수 있는데, 만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연장자를 봉양하는 것이 바르고 큰 실정에 맞지 않으면 義가 다하지 못함이 있어서 또한 바로 仁이 되는데 이르지 못한다. 仁을 말하면 禮를 포함할 수 있는데, 만일 親疏와 上下의 구분이 없으면 禮가 없어져서 仁도 또한 얻을 수 없다. 또 義를 말하면 禮를 포함할 수 있고 禮를 말하면 義를 포함할 수 있는데, 선왕이 禮로써 가르치는 것이 바르고 큰 실정이 아닌 것이 없고, 군자의 정밀한 義가 親疏와 上下를 결정하여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義를 들고 禮를 들면 仁을 포함할 수 있는 것 또한 의심이 없다. 仁·義·禮를 들면 智를 포함할 수 있으니, 智라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다.³⁷⁾

또한 戴震은 仁·義·禮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 나아가 精微한 극치를 궁구하는 것을 仁이라고 하고, 義라고 하고, 禮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천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저울로 가볍고 무거움을 재는 것과 같으니, 仁에 대해 유감된 것이 없고, 禮와 義에 대해 허물을 짓지 않으면 道가 다하는 것이다.³⁸⁾

결론적으로 戴震이 말한 仁·義·禮·智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인간의 도덕원리를 끌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戴震의 仁·義·禮·智는 배우고 노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仁·義·禮·智가 온전해 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때문에 茶山の 仁·義·禮·智가 후천적으로 노력한 뒤에 성립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37) 위의 책, p.132.

38) 임옥균 역, 『맹자자의소증·원선』, 홍익출판사, 1999, p.133.

IV. 결 론

지금까지 孟子의 仁義禮智에 대한 朱子와 茶山, 그리고 戴震의 견해를 분석해 왔다.

朱子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설명하였는데, 仁義禮智는 性이기 때문에 곧 理라고 말한다. 또한 惻隱·羞惡·辭讓·是非는 情이기 때문에 性인 仁義禮智가 四端인 惻隱·羞惡·辭讓·是非를 통해 발현하여 일상생활에서 性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茶山은 孟子의 仁義禮智를 해석함에 있어, 字義를 중심으로 孟子의 本義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茶山은 仁義禮智에 대한 字義적 해석을 통해 茶山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산의 견해에 따르면, 仁義禮智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본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茶山은 性을 ‘사람의 嗜好’라고 하였으며, 惻隱·羞惡·辭讓·是非의 마음이 仁義禮智의 시작으로, 惻隱·羞惡·辭讓·是非가 행동으로 실천된 뒤에 仁義禮智라는 개념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茶山의 이러한 견해는 朱子와 상반된 견해이다.

戴震은 仁義禮智를 의미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고 있다.

戴震이 해석한 仁義禮智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인 원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仁義禮智를 설명함으로써 인간중심의 도덕적 행동원리로 이끌어내어 해석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戴震의 仁義禮智는 개별적 도덕원리로서 朱子나 茶山과 구별된다. 또한 戴震의 견해를 따라 살펴보면, 仁義禮智는 배우고 노력하는 행위로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실천한 뒤에 仁義禮智가 성립된다는 茶山의 견해와 맥락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세 학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朱子	茶山	戴震
仁義禮智	사람의 性	사람의 嗜好	도덕원리
仁義禮智의 위치	사람이 내면에 원래 갖고 있는 것	사람이 仁義禮智에 맞는 행동을 한 후 성립	배우고 노력한 뒤에 도달하는 것
仁義禮智의 관계	仁義禮智가 모두 합해야 하나의 온전한 性이 됨 仁이 義禮智를 포함하여 나타내기도 함	仁義禮智에 맞는 행동을 한 후 성립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仁은 義, 禮를 포함 義와 禮는 서로 포함관계 智가 仁義禮를 포함
惻隱·羞惡·辭讓·是非	仁義禮智가 발현된 것	惻隱·羞惡·辭讓·是非가 발현되어 仁義禮智가 됨	四端에 대한 언급 없음

仁義禮智에 대한 세 사람의 학자가 각각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孟子』 經文의 本義에 접근하려는 각 학자의 학문적 변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변별성은 학문적 의미의 확충이며, 학문의 다양성을 성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또한 後學者들의 학문연구에 있어 사고의 전환을 이루게 하여 보다 심도 있는 經傳研究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학자의 仁義禮智에 대한 견해를 분석해 보는 것은 經傳研究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參考 文獻〉

『孟子』

『小學』

『朱子語類』 권6.

성백효 역, 『孟子 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5.

성백효 역, 『論語 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5.

정약용 저, 『定本 與猶堂全書』 7, 『孟子要義』,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이지형 역, 『譯註 茶山 孟子要義』, 현대실학사, 1994.

임옥균 역, 『孟子字義疏證·原善』, 홍익출판사, 1999.

정일균 저, 『茶山 四書經學 研究』, 일지사, 2000.

양백준 역주, 우재호 한역, 『孟子譯註』, 중문출판사, 2005.

임종욱 편,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화문화사, 2010.

허신 저, 『說文解字』, 중화서국, 2016.

단옥재 저, 『說文解字注』, 상해고적출판사, 2011.

함영대, 「일본 고학파의 『孟子』 해석과 다산 정약용의 『孟子要義』」, 『한국한문화연구』 제43집, 2009.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仁, 義, 禮, 智 of Zhu Xi, Dasan, and Dai Zhen

Kim Jo-young*

This study is conducted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仁, 義, 禮, 智(the ideas of benevolence, justice, courtesy, and wisdom) which are the key ideas in confucianism by comparing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Mencius* from Zhu Xi(朱熹), Jung Yak-Yong(茶山), Dai Zhen(戴震).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paper analyzes the writings of the three figures about *The Mencius* - 『孟子集註』 of Zhu Xi, 『孟子要義』 of Jung Yak-Yong, 『孟子字義疏證』 of Dai Zhen- by focusing on the examples that the words - 仁, 義, 禮, 智- were used in and the definition they had given to the words in their writings.

Zhu Xi who is considered to be the founder of neo-confucianism-major philosophy of eastern Asia in the medieval times- defines 仁, 義, 禮, 智 as human nature which is exactly the same with li(理)- the metaphysical concept referring to the order or the principle of the nature. According to Zhu Xi, 仁, 義, 禮, 智 represents the fundamental kindness of human nature so that these become the root of so called Four principles(四端)- the conscience that are divided into four in response to 仁, 義, 禮, 智.

Otherwise Jung Yak-Yong defines 仁, 義, 禮, 智 as not human nature but moral ideas that one should accomplish. Therefore following Four principles(四端) becomes the roots to achieve those ethical values. Even though Jung Yak-Yong still believed in the innate virtue of human being, Jung Yak-Yong's suggestion was exceptional in those days which Zhu Xi's opinion was the majority in regard to the denial of apriority of 仁, 義, 禮, 智. He broke the mold by redefining human-nature being 'Preference'.

Dai Zhen's view on 仁, 義, 禮, 智 is similar to Jung Yak-Yong in regard to

* Ph.D.Candidat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kkim1122@daum.net

considering those concepts being extrinsic so that one should accomplish by learning and practicing, but the difference is that Dai Zhen never refers Four principles(四端) as internal motivation to achieve moral values rather he emphasizes education and discipline supposedly standing Xun zi's side considering human nature being fundamentally evil. Furthermore he suggests a new angle on 仁, 義, 禮, 智 by redefining each value being interdependent.

Although the words 仁, 義, 禮, 智 have been familiar to people having been living in Confucian culture, the actual concepts of those have always been controversial because of the viviparous limitation of metaphysical ideas. Thus Comparing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ose concepts broadens the understanding and also could helps people find virtues to pursue.

【Key words】 benevolence, justice, courtesy, and wisdom(仁義禮智), human-nature(性), feeling of commiseration, shame, modesty, approving and disapproving(惻隱·羞惡·辭讓·是非), Four principles(四端)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완료일 : 12월 15일, 게재확정일 : 12월 15일

